

EBS 소설 - 고전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문들 줄거리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설홍전(영웅소설)

-주인공: 설홍

조력자: 응백, 왕승상, 노승, 운담도사

적대관계: 진숙인, 명선, 광섬, 가달왕, 돌쇠, 돌부리

가족: 설희문(아버지), 맹씨(어머니)

부인: 윤선 / 부인의 시비: 앵란

1-1. 전체 줄거리

영웅소설이다. 이 소설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져 있다. 전반부는 주로 남녀 주인공의 고행담과 같은 혼담을 맺은 이야기, 후반부에는 남자 주인공의 영웅담을 담은 영웅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 시절 주인공 설홍은 일찍이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설희문의 첩, 진씨 밑에서 자란다. 진씨는 남편이 죽은 뒤, 가사는 돌보지 않고 연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며 홍을 학대 끝에 산중에 갖다 버리게 한다.(시비한테 죽이라 했는데 안죽이고 그냥 버리고 옴)

버려진 홍은 산중에서 봉황이 물어다준 환생초와 나무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염라대왕은 홍을 잡아들여 옥황상제에게 바치는 천도를 훔쳐 먹었다고 죄를 다스리려고 하였다가, 죄없음을 알고 인간계로 돌려보낸다. 이때, 백운을 타고 가던 설처사가 홍을 발견하고 선계로 데려가 모친과 대면시킨다.(이걸 보고 설홍은 나쁘게 살면 지옥을 가니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함)

홍이 살아 있는 것을 안 진씨는(홍을 버린 이후에 점점 쇠약해져 점쟁이를 불렀는데, 점쟁이가 설홍 죽인 것 때문에 그렇다해서 유골이라도 아바랑 같이 물어주라고 시비한테 다시 명령했었음.) 다시 그에게 독을 먹여 죽이려고 하나, 홍은 죽지 않고 몸에 털이 나서 짐승같이 된다.(인공)

곰이 된 홍을 진씨가 계속 괴롭히다 강물에 버리는데 그걸 발견한 응백이 구해주게 되고, 응백의 집에 인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유명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명선은 응백에게 홍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지만 응백은 거절하였고, 결국 명선은 밤에 홍을 몰래 훔쳐간다. 그 후 홍은 노리개로 팔려다니며(서커스) 온갖 고초를 겪다가, 왕승상이 불쌍히여겨 홍을 구해준다. 그 후 산에 풀어주고, 서러워서 울다 잠든 홍은 꿈속에 나타난 한 늙은이(노승)가 주는 약을 먹고 인간이 된다. 그는 운담도사를 찾아가 병서와 무예를 배운다.

이때, 소주에서 왕승상이 딸 윤선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몸종 돌쇠가 왕승상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왕승상은 딸의 꿈에 나타나 사실을 알려주고, 설홍과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가연을 맺으라고 한다. 설홍은 운담도사의 교시를 받고 소주에 이르러 잠을 청하였는데, 꿈속에서 왕승상의 교시를 받고 왕소저를 검탈하려 하는 돌쇠를 잡아 죽인다. 두 사람은 신물을 교환하여 가약을 맺고 작

별한다.

돌쇠의 아우 돌부리가 산중에서 술법을 배우고 나와, 형의 복수를 하려고 왕소저와 설홍을 찾아 헤맨다. 왕소저는 꿈에서 망부의 지시를 받고 산사로 피신한다. 설홍은 용하산에서 돌부리를 만나 7일 동안 싸운 끝에 죽인다. 이후 돌부리의 스승이 제자의 원수를 갚으려고 설홍과 싸우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한다.

설홍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기주땅의 순무어사가 된다. 왕소저는 화적떼를 만나는 등 여러 번 위기에 처하며 방황하다가 길에서 뜻밖에 설홍을 만나 구출된다. 이때 북홍노가 중원을 침공하여 황제가 위험한 처지에 빠진다. 설홍은 왕소저와 성례한 뒤, 전쟁터로 달려가 적장을 베고 황제를 구출한다. 대원수가 된 설홍은 호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와 강동왕의 책봉을 받는다.

1-2. 주요 포인트

- a. 인간에서 꿈으로 변하는 장면
- b. 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 c. 노비가 주인을 죽인 부분(돌쇠가 왕대인을)

2. 옥린몽

2-1. 주요 줄거리

범경문은 어릴 때 부모들이 정혼해 둔 유정의 딸인 유 소저와 혼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마 여씨가 천자를 동원하여 자기의 딸인 교란과 성혼시킨다. 범경문은 이후 유 소저를 아내로 맞이한다.

본의 아니게 두 부인을 두게 된 범경문은 여 부인보다는 유 부인을 편애하는데, 여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유 부인을 제거할 마음을 먹는다.

한편, 유 부인의 동생 유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져 이부시랑이 되고, 범경문은 병부상서가 된다. 이때 조정에서는 호국과 조용히 논의하기 위해 범경문을 북조통신사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정변이 일어나 범경문은 돌아오지 못하고 구검된다.

경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여 부인은 갖은 방법으로 모략하여 유 부인을 먼 곳으로 유배시키는데 성공한다. 유원은 그의 누이 유 부인이 유배된 지역의 근처 지방관을 자원하여 임지로 가다가 여 부인이 보낸 자객의 습격을 받아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 그러나 다행히 모 부인의 지극한 간호로 회복되어 이후 선정을 베풀어 예부상서가 된다.

오랑캐(호국)가 침범해 오자 유원은 정북대원수가 되어 호적과 대적하는데, 이때 호국에서는 그때까지 구속해 두었던 범경문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청한다. 유원은 오랑캐(호국)의 화친을 받아들이고 범경문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

한편, 유 부인의 시비인 운홍은 여 부인이 보낸 자객에게 잡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운홍은 그 자객으로부터 유 부인과 유원을 죽이고자 한 것이 모두 여 부인의 소행임을 듣고 상경하여 여 부인을 고발한다. 이에 유 부인은 오명을 벗고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되고, 여 부인은 그 죄악이 들통나서 귀양을 가게 된다.

유원의 승전(전쟁에서 이김.=개선)과 유 부인의 무죄가 알려지자, 여 부인의 시기로 인하여 흩어졌던 유원의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이후 여

부인이 지난 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착한 사람이 되자 유 부인이 탄원하여 여 부인을 방면시킨다. 그로 인해 양가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2-2. 주요 포인트

- a. 주인공이 여러명(범경문, 유 부인, 유원)
- b. 악인의 성격 변화(세탁)
- c. 처첩갈등

3. 정을선전

3-1. 전체 줄거리

경상좌도에 사는 정진희라는 재상과 부인 양씨는 늦게야 을선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용모와 재질이 뛰어났다. 또한 익주 땅에는 유한경이라는 재상이 노씨라는 후처와 딸 추연을 데리고 살았다. 유재상의 회갑날 아버지를 따라 놀러온 을선은 후원에서 그네를 뛰는 추연을 보고는 상사병이 들고 말았다.

이 사정을 안 두 재상이 을선과 추연을 정혼시켰고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을선은 드디어 추연의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첫날밤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계모 노씨가 자기의 사촌오빠로 하여금 추연의 간부(내연남)로 위장시켰고 추연을 의심한 을선은 자기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연실색한 추연은 변명도 못한 채 울다가 죽었고 이후 추연의 혼령이 나타나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익주는 폐촌이 되고 말았다.

익주가 폐촌이 되었다는 상소를 받은 임금은 을선을 익주에 파견하였고 을선은 혼자 남아 있던 추연의 유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제서야 자기의 불찰을 깨달았다. 을선은 추연의 혼령이 시키는대로 금성산에 가서 신기한 구슬을 얻어와 방안에 있는 추연의 시신에 놓아 그녀를 회생시켰다. 을선이 추연을 총렬부인(추연)으로 봉하여 원비로 삼고 사랑하니 을선과 먼저 혼인하였던 초왕 딸 정렬부인(조씨)이 이것을 시기하였다.

을선이 출정한 사이에 정렬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총렬부인을 오해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이를 알고 대노하여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총렬부인은 지함에서 혼자 아들을 낳고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 을선이 이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돌아와 진상을 밝혀내고 황제는 정렬부인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리고 총렬부인과 아들을 구하여 이후로 부부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같은 때에 죽었다.

3-2. 주요 포인트

이 작품은 계모형 가정소설로서 전반은 남녀 주인공의 결연, 중반은 계모와의 갈등, 후반은 남편을 둘러싼 부인들의 쟁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
- b.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

c. 처첩 갈등

4. 옥루몽

-주요인물(천상계): 양창곡(문창성), 윤 소저(제빙옥녀), 황 소저(천요성), 강남홍(홍란성), 벽성선(제천선녀), 일지련(도화성)

4-1. 전체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선녀들을 희롱한다. 이에 문창성은 양창곡으로, 제빙 옥녀는 윤 소저로, 천요성은 황 소저로, 홍란성은 강남홍으로, 제천선녀는 벽성선으로, 도화성은 일지련으로 각각 지상계에 태어나게 된다.

양창곡은 과거 응시 차 상경하던 길에 기녀 강남홍과 가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 자사 황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는데, 윤 소저에 의해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에 몸을 의탁한다.

양창곡은 황성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강남홍이 자살한 줄 알고 몹시 슬퍼한다. 양창곡이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자 황 각로와 노 상서가 각각 자신들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구혼한다. 그러나 양창곡이 이를 거절하고 윤 소저와 혼인하자 양창곡은 황 각로의 딸과 혼인하라는 천자의 명을 어긴 죄로 하옥되고, 노 상서의 모함까지 더해져 강주로 유배된다.

이곳에서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 가연을 맺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천자의 명령에 따라 황 각로의 딸과 혼인한다. 이때 남만이 침공하자 양창곡은 대원수가 되어 남만을 친다. 남만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의 대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그에게 도망쳐 상봉한 후 명군의 부원수가 되고 적국은 항복한다.

이후에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4-2. 주요 포인트

- a. '현실(천상계)-꿈(지상)-현실-꿈-현실'의 몽중몽 구조
- b. 양창곡보다 부각되어 보이는 강남홍(여성영웅적 면모)